

Hana FX Weekly Letter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외환파생상품영업부

2025. 6. 23



주간 달러/원 동향(6/16~6/20)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초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면서 상승 출발한 환율은 글로벌 통화 시장이 이란-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을 단기 위험 재료로 인식한 시점 이후 하락 전환하는 양상 시현. 이어 이란-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이 닷새째 이어진 가운데 이란이 한발 물러나는 조짐을 보이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누그러진 양상 속 소폭 환율 하락 했지만, G7에 트럼프 조기 귀국 소식 등이 시장 경계감을 키운 형국. 중반 들어, 미국이 이랑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경계감에 위험회피 심리 확산하며 상승. 후반 들어, 미국,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주말 사이 핵시설 공습 가능성 제기 등으로 연일 중동 정세 리스크 확대 속 6월 FOMC의 매파적 결과 등으로 큰 폭 상승 나타난 가운데, 주 후반, 트럼프의 이란 공습 결정을 2주내 결정하기로 함에 따른 위험회피 분위기 완화 속 대내적 코스피 강세 등으로 큰 폭 하락 마감

달러/원 전망

- 지난 휴일간 촉발된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이란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크게 확대되며 달러 강세 압력 강화될 전망
- 여기에 이란이 후티 반군을 동원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봉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정학적 경계감을 높이는 동시에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을 고조 시킨다는 측면에서 달러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 또한, 미국 국내 반도체 사의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 면제 철회 검토 요인 등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전반적 환율변동성의 상방 요인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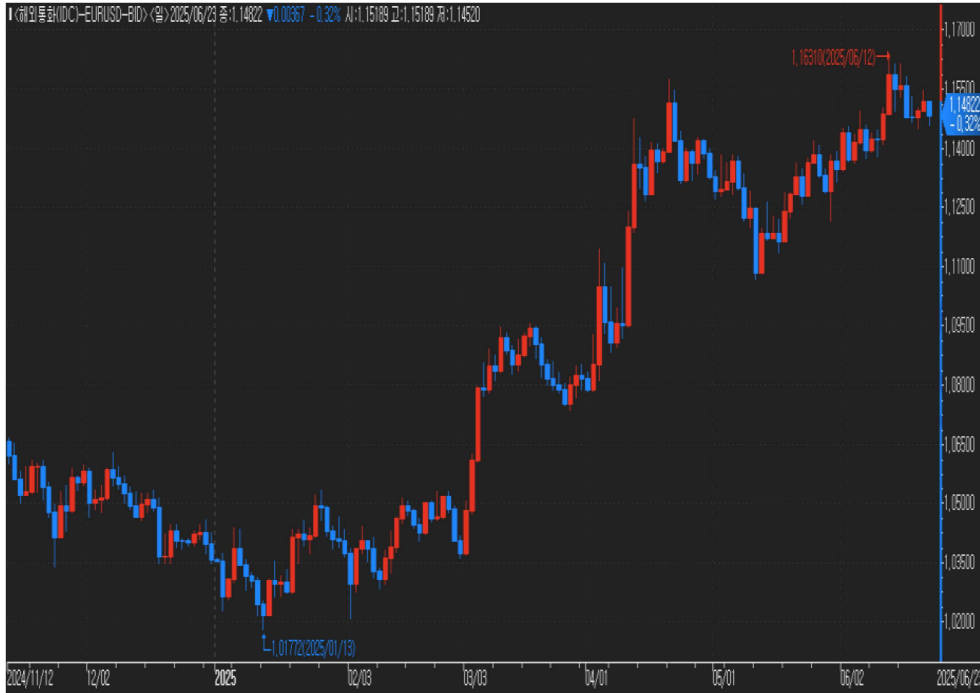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	------	------	------	------

1,368	1,386.3	1,359	1,365.6	-4.0
-------	---------	-------	---------	------

예상거래범위

1,375원 ~ 1,390원

유로·엔화 동향 (6/16~6/20)



유로화 동향

- 주초,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로 달러인덱스가 강세 전환한 양상이었으나, ECB 금리인하 가능성 약화 등에 대한 시장 인식 등으로 유로 강세 출발. 이어 미국 소매판매가 지난 '23.3월 이후 가장 큰 0.9% 감소를 보이며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났으나, 이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강경 발언 등으로 강세 전환. 이에 따라 유로 환율도 하락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FOMC 이후, 파월 의장 인플레이션 경계 발언에 미국채 금리 상승하며 달러인덱스 강세 흐름 나타냈고, 여기에 중동 분쟁 관련 트럼프 대통령 이란 공격 가능성 강성 언급으로 유로화는 달러 대비 약세 지속
- 후반 들어, 중동 긴장 완화 속 뉴욕 연은 총재인 윌러 이사 7월 금리인하 언급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가능성 부각으로 달러인덱스가 약세 압력을 받음에 따라 유로화는 강세 전환하며 마감

엔화 동향

- 초반, 지난주 금요일 시작된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이후 달러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엔화 환율 약세 출발. 이어 트럼프 대통령 g7회의 조기 귀국 후, 이란 관리들과 회담 예정 등에 따른 중동 정세 긴박함 등이 달러 매수에 영향 미치며 엔화 하락. 이날 BOJ 금정위 금리 동결 등은 시장 예상 부합 등으로 엔화에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중반, 4월 기계류 수주 및 5월 무역수지 적자 이어간 측면이 엔화 약세로 작용했지만,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미군 개입 가능성 제기 속 트럼프 이란 강경 발언 등으로 안전 선호 강화되며 강세 전환한 국면. 후반 들어, 중동 정세 불안 지속에 안전 통화인 엔화 매수 움직임 유입된 가운데, 미 금융 시장 휴장 앞두고 관망세 짙어진 흐름. 이어 주 후반, 이란에 대한 즉각적인 미군 개입 관측이 후퇴하며 안전자산 선호가 후퇴하였지만, 일본 물가지표가 목표 2%를 꾸준히 넘어선 측면이 엔화 강세 지지하며 마감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547 1.1579 1.1446 1.1518 -0.0028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4.1 146.2 143.6 146.1 +1.98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6/16~6/20)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초반, 중동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지정학적 요인이 유가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에 부담요인이 될 것이란 전망과 2차 추경 편성 불확실성 등이 국고채 시장 약세 요인 작용하며 금리 상승 출발. 이어 2차 추경에 대한 시장 예측을 반영하는 가운데 단기물 하락, 장기물 상승에 가파른 커브 형태 시현. 중반 들어, 간밤 미 국채 시장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 가능성의 위험회피 분위기 휩싸인 가운데 5월 소매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 국채금리 방향성에 모호한 방향성을 나타내게 하며 국고채 금리에 영향을 미쳤지만, 2차 추경에 대한 확정안 두고 경계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도세 등으로 상승 양상 시현
- 후반 들어, 2차 추경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확인한 이후, 국고채 시장은 추경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강세 압력 받으며 금리 소폭 하락 전환 후, 주 후반, 중동리스크에 대한 경계감 외 특이 이슈 부재하며 관망세 보인 가운데 아시아장의 미 국채 강세 반영에 따라 하락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초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부담이 투자심리 악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란에 대응이 마땅치 않아 조기 수습에 대한 기대감 속에 방산 위주로 반도체 업종 등의 모멘텀 강화 속 상승 출발. 이어 트럼프 대통령 G7 조기 귀국 속 이란에 대한 소개령 등 부정적 이슈 속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무산 등이 실망감을 높인 측면에 따라 장 후반 급등락한 가운데 강보합 시현. 중반 들어, 글로벌 증시가 중동 분쟁 이슈 확대에 혼조세를 나타냈음에도 코스피는 1,2차 추경 규모를 확인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기대감 속 IT 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강보합 지속
- 후반 들어, 간밤 FOMC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금리 동결을 했으나, 시장의 대체적 매파적 인식에도 시장 영향은 제한. 여기에 중동 리스크 고조에도 투자심리 약화에 대한 영향이 다소 무뎠으며 소폭 상승 흐름 지속 후, 주 후반, 정부 대규모 추경안 통과 속 소비 활성화 기대 반영 등으로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년6개월 만에 코스피 3,000선 재돌파하며 마감